

※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일반적으로 문화적 담론에 의해 전달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표상’이다. 언어는 그 자체가 고도로 조직화되고 기호화된 시스템으로, 표현, 암시, 메시지 및 정보의 교환, 그리고 표상 등을 위해 여러 장치를 활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담론 속의 언어는 존재 자체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작성자에 의해 재현되고 표상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양에 관해 작성된 서술의 가치와 유효성 및 진실성이 반드시 동양 그 자체에 기반한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동양을 실질과 다르거나 대체된 존재로 전달할 위험이 있다.

(나) 사탄의 끔찍한 후손들, 즉 타타르인들(몽골인)의 거대한 무리가 마치 지옥에서 악마들이 풀려나듯이 산으로 둘러싸인 그들의 땅으로부터 갑자기 나타나 결코 통과할 수 없는 암석을 관통하며 나아갔다. 그들은 나라를 파괴하고 메뚜기 떼처럼 지면을 뒤덮으며 가는 곳마다 불 지르고 학살하며 폐허로 만들며 동쪽으로부터 다가오고 있다. 그들은 잔혹하고 짐승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이라기보다는 괴물로 불려야 마땅했고, 피를 갈망하고 마셨으며, 개와 사람의 살을 찢어 먹었다. 그들에게는 인간의 법이 없었고, 자비를 몰랐으며, 사자나 곰보다 더 잔인하였다.

(다) 타타르인들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 주인에게 순종적이며, 가볍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싸움, 언쟁, 상해, 살인과 같은 일은 그들 사이에서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남의 물건을 훔치는 강도나 도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진 음식이 많지는 않아도 서로 기꺼이 나눕니다. 또한 고난을 오래 참아 하루나 이틀 동안 먹지 않아도 되고, 행군할 때에는 매서운 추위와 혹독한 더위도 잘 참습니다. (중략)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극도로 오만하며 모두를 깔보고, 다른 사람에게 금세 화를 내며 성격이 조금합니다. 또한 남에게 거짓말을 잘 하는데, 거의 진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만약 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속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지나칠 정도로 탐욕스러우며, 남에게 주는 것에는 매우 인색합니다. 다른 사람을 학살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문제 1] (나)와 (다)의 저자는 모두 13세기 중엽 몽골의 대외 팽창 시기 유럽 사회의 구성원이다. (가)의 관점에서 (나)와 (다)에 포함되어 있는 ‘표상된 이미지’와 ‘객관적 사실’을 논하시오.

[문제 2] (나) 또는 (다)의 저자가 느꼈으리라 생각하는 감정 중 하나를 아래의 보기에서 선택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고, 본인이 읽은 문학 작품 중 해당 감정이 가장 두드러지게 표출된 사례를 이야기하시오.

두려움, 멸시, 분노, 비탄, 시기, 우월, 이질감, 절망

활용 모집단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경제학부 제외) 사범대학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독어교육과, 불어교육과, 윤리교육과, 체육교육과
문항해설	[문제 1] 제시문 (가)는 ‘동양’에 관한 서술이 모두 사실은 아니며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저자에 의한 이미지 표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줌. 제시문 (나)와 (다)는 몽골에 대한 당시 유럽인의 기록으로서 몽골의 표상된 이미지와 객관적 사실이 혼재되어 있음. 이 문항은 (가)의 관점에서 (나)와 (다)를 분석하면서 양자를 구분하고 그와 같이 판단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함. [문제 2] 제시문 (나)와 (다)의 저자는 각각 당시 몽골에 대한 서술을 남김. 그리고 제시문 (가)를 통해 이 저자들의 서술에는 그들의 시각이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힘. 이 문항에서는 수험생이 제시문 (나)와 (다)를 통해 각 저자가 몽골의 침략이라는 위협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꼈을 것인가 추론하고, 자신의 독서 경험을 통해 유사한 사례를 제시하게 함으로써 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하였는지, 창의력 및 응용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함.
출제의도	[문제 1] 정확한 독해력을 기반으로 제시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다른 텍스트에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응용 및 사고능력을 평가함 [문제 2]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독서 경험과 연결할 수 있는 창의력을 평가함
교육과정 출제근거	[개념] 몽골, 표상된 이미지, 객관적 사실, 서술자의 시각, 역사적 서술, 역사적 사실, 서술자의 감정, 문학 작품, 문학에서의 감정 표현, 표현 방식 비교 [출처]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자료출처

[교과서]

이삼형 외, 《국어》, 지학사, 114-141쪽
정민 외, 《국어》, 해냄에듀, 224-293쪽
최원식 외, 《국어》, 창비, 30-53쪽
고형진 외, 《독서》, 동아출판, 26-39, 46-83, 112-121, 162-177쪽
방민호 외, 《독서》, 미래엔, 22-33, 74-105, 134-143, 202-212쪽
서혁 외, 《독서》, 좋은책 신사고, 22-37, 52-79, 160-169쪽
김창원 외, 《문학》, 동아출판, 86-111, 113쪽
최원식 외, 《문학》, 창비, 71, 90-99쪽
한철우 외, 《문학》, 비상교육, 59-82, 103-107쪽
김형중 외, 《세계사》, ㈜금성출판사, 52-54쪽
이병인 외, 《세계사》, 비상교육, 52-53쪽
최준채 외, 《세계사》, 미래엔, 51-53쪽

[기타]

에드워드 사이드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2000
Matthew Paris, J A Giles, William Rishanger, 《Matthew Paris's English history
From the year 1235 to 1273》, H.G. Bohn, 1852
플라노 드 카르피니, 윌리엄 루브록 (김호동 역), 《몽골 제국 기행》, 까치, 2005